



시애틀에서 즐기는 따뜻한 크리스마스

영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의 배경 도시인 미국 시애틀에서 풍성한 크리스마스 축제가 열린다. 우선 1949년부터 이어져 온 시애틀의 대표적 연말 이벤트인 아르고시 크리스마스 함선 축제가 12월 23일까지 진행된다.

전구 수백 개로 꾸며진 함선은 퓨젯 만과 레이크 워싱턴 인근 지역을 항해하면서 크리스마스 캐럴 공연, 산타클로스와와의 포토 타임 등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인다. www.argosycruises.com

우드랜드 파크 동물원은 내년 1월 1일까지 '와일드 라이트' 조명 축제를 개최한다. 동물원 전체가 약 60만 개의 조명으로 꾸며진다. 실내 눈싸움, 루돌프 만나기 등 다채로운 이벤트도 열린다. 축제는 오후 5시 30분~8시 30분에 진행된다. 12월 24~25일은 헌다. www.zoo.org/wildlights 시애틀 아쿠아리움은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는 산타클로스를 만날 수 있는 '다이빙 산타'를 12월 24일까지 선보인다. 다이빙 쇼, 뮤지컬 공연, 바다 생물 만나기 등 이색 이벤트가 진행된다. www.seattleaquarium.org/diving-santa

시애틀 대표 겨울 축제인 '윈터페스트'는 내년 1월 1일까지 시애틀 센터에서 진행된다. 매주 토요일 열리는 얼음 조각 축제에서는 크리스마스 트리, 모형 기차 등 얼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12월 31일에는 스페이스 니들에서 새해맞이 불꽃놀이가 열린다. www.seattlecenter.com/winterfest/



캐나다 밴쿠버서 트와이스 뮤비 촬영

캐나다관광청은 걸그룹 트와이스의 신곡 'Likey'의 뮤직비디오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밴쿠버에서 촬영됐다고 밝혔다.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핑크, 노랑, 보라의 알록달록한 골목은 핑크앨리(Pink Alley)로 불리는 곳이다. 바닥과 벽이 다채로운 색깔로 뒤덮여 사진 촬영지로 인기가 높다.

트와이스 멤버 한 명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달리는 곳은 도심 공원인 스탠리파크(Stanley Park). 방파제를 따라 약 10km의 해안도로가 조성돼 산책하거나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다. 공원에는 미니기차와 버스가 다니고 수족관, 토템폴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다. 자전거 대여소는 공원 입구 근처에 있다.

뮤직비디오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장소는 개스타운(Gastown). 역사적인 건물이 있는 곳으로 15분 간격으로 증기를 내뿜는 증기 시계를 볼 수 있다. 디자이너 구두 가게, 맥주 펌, 트렌디한 레스토랑 등이 즐비하다.



'아나톨리아 컬러' 내한공연 성황

터키 아나톨리아 각 지역의 전통춤과 노래를 집대성해 한자리에 펼친 터키 '아나톨리아 컬러(Anadolu Renkleri)' 내한공연이 11월 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공연단원 60여 명이 내한해 세계 최초 군대 오케스트라로 유명한 '메흐테르'(Mehter)의 활기찬 음악, 2010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에 등재된 '세마흐'의 신비하고 감각적인 춤, 이슬람 수피주의 종교의식인 '메블라나 세마'와 '알레비 세마' 등을 선보였다.

터키문화관광부와 주한터키대사관은 올해 2017년 한-터키 수교 60주년과 한-터키 양국 문화의 해를 맞아 에버랜드 '터키 툴립 정원' 행사, '터키 음악인들의 밤' 콘서트, 터키 영화제 등을 진행했다.



자메이카 관광객 체험 거리 3선

자메이카관광청은 자메이카를 찾는 관광객들이 체험해 볼 만한 세 가지를 소개했다. 카리브해를 역동적으로 느끼고 싶다면 해양 생물과 어우러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테마파크 '돌핀 코브'(Dolphin Cove)가 안성맞춤이다. 스노클링, 스쿠버다이빙, 돌고래와의 수영을 즐길 수 있다. 노랑기오리와 해엄치기, 상어쇼 관람, 낙타 타기 체험도 가능하다.

항구도시 팔머스(Falmouth)에는 이색 관광명소인 글리싱 워터스 루미너스 라군이 있다. 물속 미생물이 해류의 영향을 받아 빛을 발하는 진귀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일몰 무렵부터 운행하는 보트 크루즈에서도 볼 수 있다.

1770년대 건축된 로즈를 저택은 서인도 문학사의 중요 인물 중 한 명인 드 리서(H. G. de Lisser)가 쓴 소설의 배경이다. 저택의 주인이었던 애니 팔머(Annie Palmer)의 처정과 노예 학대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는 장소이기도 하다. 탁 트인 평원을 배경으로 카리브해를 조망할 수 있어 야외 결혼식 장소로 인기가 높다.



스위스 로잔에 유럽 최대 민물 수족관 개장

스위스 로잔에 유럽 최대의 민물 수족관인 '아쿠아티스(AQUATIS)'가 문을 열었다. 3천500㎡ 부지에 들어선 아쿠아티스는 수족관 46개, 동물사육장 등을 갖추고 있다. 주걱철갑상어, 파라나아 등 전 세계 민물고기 1만여 종을 만날 수 있고, 파충류와 양서류 100여 마리를 볼 수 있다. 2층은 알프스, 레만호, 론 강, 지중해 등 네 개 구역으로 꾸며져 있다. 3층에서는 다른 나라에 서식하는 동물을 관찰할 수 있다. 또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지구 상의 다채로운 생명체를 보여준다. 로잔 기차역에서 내려 크로아제뜨(Croisettes) 방향 메트로 M2를 타고 벤느(Vennes)에서 내리면 닿는다. 기차역에서 도보로 약 10분 걸린다. 입장료는 성인 29스위스프랑, 어린이 19스위스프랑. www.aquatis.ch



파리 일 드 프랑스 겨울 축제

프랑스관광청과 파리 일 드 프랑스 지역 관광청(CRT)은 놓쳐서는 안 될 겨울 축제를 소개했다. 12월 31일 상젤리제 개선문 앞에서 미디어 파사드와 불꽃놀이가 펼쳐진다. 개선문을 화폭으로 삼아 완성되는 8개의 그림과 하늘을 밝게 빛내는 불꽃놀이를 감상할 수 있다. 보르비몽트 성은 내년 1월 7일까지 크리스마스 축제를 연다. 가장 큰 불꽃놀이를 감상할 수 있는 오색찬란한 불빛이다. 수십 년간 보르비몽트 성의 장식가로 활동하고 있는 에릭 노랭이 8m 높이 사슴 조형물, 회양목, 토피어리, 건물 내외부 등을 화려하게 장식할 예정이다. 파리 디즈니랜드의 크리스마스는 거대한 트리, 찬란한 공원 조명, 산타클로스와 디즈니 만화주인공의 퍼레이드, 겨울왕국 공연 등으로 유명하다. 올겨울에는 내년 1월 7일까지 크리스마스 캐럴 리메이크 공연, 구피가 들려주는 밤의 동화, 크리스마스 캐럴 합창 공연, 장난꾸러기 스티치의 코미디 무대 등이 새로 선보인다.





<<'안동 양반'들이 살던 고택 체험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명품고택 84곳 중 26곳이 있는 경북 안동은 역사가 깊은 전통 건물과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고장이다. 호텔 검색 엔진 호텔스컴바인인 안동여행을 계획하는 여행객들을 위해 안동의 유명 고택 4곳을 소개했다. 온계 증택은 퇴계 선생의 형인 온계 이해 선생이 노송정 본가에서 분가해 지은 곳이다. 의병 활동의 본거지라는 이유로 일본군 방화에 소실됐다가 110여년 만인 2011년 복원됐다. 사랑채, 큰방, 간넛방 등 총 7개의 객실로 이루어졌다. 마당 앞에는 이해 선생이 심은 500년 된 밤나무가 있어 운치를 더한다. 조식으로 안동갈비 등 따뜻한 한정식을 맛볼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목재 고택은 안동시 도산면 원천리에 있는 전통 가옥으로 조선 후기의 문신인 이만유의 옛집이다. 현재는

민족 항일시인 이육사 선생의 딸인 이옥비 여사가 관리한다. 고택 내부를 새로 수리하여 실내 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정비하고 있다. 총 5개 객실을 갖췄다. 두릉 고택은 1800년대 말기 한옥 가옥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가옥으로 경상북도 문화재 자료 259호로 지정됐다. 총 3개의 객실을 운영 중이다. 민화 그리기, 천연염색 등 다양한 민속 체험도 해볼 수 있다. 치암 고택은 안동시 중심가에서 가까운 산촌에 자리 잡아 월영교, 안동민속촌 등의 관광지가 차로 10분 이내에 있다. 이곳은 조선 고종 때 언양 현감, 흥문관 교리를 지낸 퇴계 선생의 11대손 치암 이만현의 고택이다. 안동댐 수몰 지역에서 1976년 옮겨 세웠다. 건물 규모는 본채 22칸 'ㅁ'자형 기와집으로 솟을대문과 바깥채가 있다.



반안트리 마카오에서 보내는 특별한 연말 반안트리 마카오가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와 송년을 맞아 다양한 프로모션과 레스토랑별 특선 메뉴를 선보인다.

야외 수영장에 위치한 카바나(Cabana)에서는 중국식 사부사부인 핫팟(Hot Pot)과 바비큐 세트 메뉴를 제공하는 미식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12월 24일, 25일, 31일 이용할 수 있고 가격은 4인 기준 한화로 약 26만원부터.

31층에 위치한 해산물 및 그릴 요리 전문 레스토랑인 벨론(Belou)은 추주방장 미르코 카파 셰프가 준비한 모던 4코스 크리스마스 디너 세트 메뉴를 선보인다. 훗카이도산 가리비와 포치니 버섯 수프로 구성된 전채와 각종 디저트 외에 노스랜드 연어와 수비드 송아지 필레 중에서 메인 요리를 선택할 수 있다. 가격은 1인당 한화로 약 14만원부터.

반안트리 스파는 내년 1월 5일까지 이용 가능한 150분 '윈터 럭셔리 패키지'를 출시했다. 겨우내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피부에 영양과 윤기를 더하는 마사지 트리트먼트 등으로 구성된 이 패키지는 1인 기준 한화로 약 39만원부터.



포시즌스호텔 서울, 크리스마스·연말연시 패키지

포시즌스호텔 서울은 연말연시를 맞아 '키즈 스테이 워م(Kids Stay Warm)' 패키지와 크리스마스 전용 '페스티브(Festive)' 패키지를 선보인다. 키즈 스테이 워م 패키지로 예약하면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핸드북과 크리스마스 한정판 볼록 인형을 선물한다. 2인 조식과 함께 객실 내로 나이에 맞춘 어린이 고객 전용 물품과 간식을 서비스한다. 프리미어로 업그레이드할 경우 어린이용 텐트를 무료로 설치해준다.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선보이는데, 12월 24일과 25일, 31일은 예약을 받지 않는다. 페스티브 패키지로 예약하면 모든 객실에 특별한 크리스마스 어메니티를 제공한다. 어린이 고객에게는 산타클로스의 선물처럼 쿠키와 사탕으로 가득 찬 크리스마스 양말을 증정한다. 이 외에 어린이용 핸드북과 크리스마스 한정판 인형, 나이에 맞춘 어린이용 어메니티 등을 다양하게 마련해 준다. 12월 24일과 25일, 31일 이용할 수 있다. 12월 24일과 25일은 2박을 투숙해야 예약할 수 있다. 두 패키지 모두 요금은 39만5천원(세금 별도)부터.



<<1억5천만원짜리 중남미 여행상품 '라틴 이스케이프'

포시즌스 호텔 앤드 리조트는 2019년 프라이빗 제트 투어 일정을 발표했다. 프라이빗 제트 투어는 최고급 호텔형 여객기 '프라이빗 제트'를 타고 전 세계 주요 명소를 돌아보며 각 지역 포시즌스 호텔에 투숙하는 럭셔리 세계 여행 패키지다. 내년에는 중남미 주요 관광 명소를 돌아보는 '라틴 이스케이프'가 신설된다. 중남미 주요 여행지를 방문하는 '라틴 이스케이프'는 내년 2월 9일부터 24일까지 총 16일간이다. 주요 여정으로는 마이애미 베르사체 맨션에서 프라이빗 디너를 즐긴 후 코스타리카로

이동, 최신식 GPS 망원경으로 우주 관측 후 실제 운석을 활용한 칵테일 파티를 즐긴다. 프라이빗 제트에 탑승해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이동 후 이구아수 폭포 등 이색적인 자연을 돌아본 뒤 승마를 즐기고 목장에서 바비큐 파티를 하는 등 역동적인 남미의 야생을 체험한다. 이후 콜롬비아 보고타로 이동,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아트 투어, 살사 레슨 등 지역 고유문화를 체험한 후 갈라파고스로 이동, 프라이빗 크루즈에 탑승해 스노클링, 패들보딩 등 다양한 해양 스포츠를 체험한다. 마지막 날에는 프라이빗 제트로 최초 출발지인 마이애미로 복귀하며 중남미 여행의 전 여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4대륙 9개 도시 투어 패키지 '타임리스 인카운터'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의 3대륙 문화 탐방 프로그램 '인터내셔널 인트리그'도 2019년 다시 출시된다. 각 상품은 1인당 1억5천500만원 선에 판매된다. 상품가는 항공료, 지상 교통비, 일정에 명시된 관광, 숙박, 숙박 비용 일체를 포함한다. 예약 관련 사항이나 자세한 투어 일정이 궁금하면 포시즌스 프라이빗 제트 전용 홈페이지(www.fourseasons.com/privatejet)를 방문하면 된다.



제주 포도호텔 '온천 힐링' 특가 패키지

포도호텔은 '온천 힐링' 특가 패키지를 12월 31일까지 선보인다. 이번 패키지는 포도호텔 디럭스 객실 1박, 웰컴 과일, 무료 미니바, 2인 조식과 함께 객실에서의 온천욕을 포함한다. 디아넥스호텔 실내수영장(유아풀 원비)과 온천사우나 이용(2인)도 가능하다. 2박 투숙 시 왕새우 튀김우동 정식, 3박 투숙 시 레몬 파운드 케이크가 제공된다. 선착순 판매 20실에 한해 호주의 천연 스킨케어 브랜드로 유명한 'AESOP JET SET KIT'를 증정한다. 전 객실에 공급되는 온천수는 2천1.3m 아래에서 끌어올려 알칼리 지하수와 섞지 않은 100% 순수 온천수다. 패키지 요금(부가세 포함)은 11월 주중 43만원, 주말 48만원, 12월 주중 36만원, 주말 41만원. 12월 22일부터 31일까지의 연휴 기간에는 주중·주말 50만5천원.



가족이 함께 즐기는 특별한 겨울 휴가

켄싱턴 제주 호텔은 온 가족이 함께 여유롭고 특별한 겨울 휴가를 즐길 수 있는 '럭셔리 올인클루시브 포인포 키즈 패키지'를 내년 3월 3일까지 선보인다. 이 패키지는 아이용 가운·슬리퍼·욕실 어메니티가 준비된 포인포 키즈룸, 케니의 동화나라·해너놀이·마린 키즈·케니의 풍선 나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놀이 시설이 준비된 포인포 키즈 클럽, 키즈 크래프트·쿠킹 클래스 참여와 저녁 식사를 제공하는 '키즈 케어' 서비스(5세 이상 가능) 등으로 아이들에게 동화 같은 하루를 선사한다. 스냅 앨범이나 스튜디오 액자를 택해 가족의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럭셔리 포토' 프로그램,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느껴볼 수 있는 '겨울 사진 투어' 등 액티비티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요금은 49만원부터(성인 2인 & 소인 1인 기준, 세금 별도)



▲에미레이트, 100번째 A380 항공기 도입

에미레이트항공이 100번째 A380 항공기를 도입해 세계 최대 A380 항공기 보유사의 입지를 굳혔다. 에미레이트항공은 11월 3일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에어버스 딜리버리 센터(Delivery Center)에서 100번째 A380 항공기 도입 기념식을 열었다. 셰이크 아메드 빈 사이드 알막툼 에미레이트 그룹 회장은 "100번째 A380 항공기 도입은 에미레이트항공, 에어버스, 관련 고객사 등 모두에게 매우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A380 항공기로 고객들에게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여행 경험을 선사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에미레이트항공은 2008년 첫 A380 항공기를 도입한 이후 항공업계 최초의 기내 라운지 바, 샤워 스파, 무료 와이파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등을 선보였다. A380 항공기 최대 보유사로 현재 전 세계 84개국 156개 도시에 취항하고 있다. 두바이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A380 허브를 운영하고 있다. 이 시설은 퍼스트·비즈니스석 라운지, 면세점, 스파, 레스토랑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아시아나 '챗봇 서비스' 시범운용

아시아나항공이 국내 항공사 최초로 '챗봇 서비스'(Chatbot Service)를 도입해 시범운용에 들어갔다. '챗봇 서비스'는 사전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로 항공 여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메신저 검색창에 '아시아나항공 챗봇' 또는 'asianachatbot'을 입력한다. 카카오톡의 경우 1:1 채팅, 페이스북 메신저는 메시지 보내기를 선택한 후 챗봇과의 1:1 대화가 시작되면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예약 재확인, 운항정보, 출·도착 확인, 아시아나클럽 마일리지, 스타얼라이언스 회원사 정보 등 총 11개 항목에 대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캐세이퍼시픽, 브뤼셀·더블린·코펜하겐 내년 취항

캐세이퍼시픽항공은 유럽의 떠오르는 인기 도시인 브뤼셀, 더블린, 코펜하겐 직항편을 2018년부터 운항한다. 홍콩~브뤼셀 노선은 내년 3월 25일부터, 홍콩~더블린 노선은 6월 2일부터 각각 주 4회 운항한다. 홍콩~코펜하겐 노선은 5월 2일부터 10월 12일까지 약 6개월간 운항한다. 한국 출발 승객은 인천-홍콩 구간을 매일 6회 운항하는 캐세이퍼시픽의 다양한 스케줄을 이용할 수 있다. 홍콩에서 스톱오버도 1회 무료로 할 수 있다. 캐세이퍼시픽은 이번 신규 취항을 기념한 특가 항공권 판매를 내년 3월 31일까지 한다. 인천-브뤼셀 일반석 왕복항공권은 87만9천700원, 인천-더블린은 85만9천원, 인천-코펜하겐은 87만4천200원부터(이상 유류할증료·세금 포함)다.



▲델타항공, 기내 무료 문자 서비스

델타항공은 미국 국적 글로벌 항공사 최초로 기내에서 승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무료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시작했다. 델타항공 승객은 애플 아이메시지(iMessage), 왓츠앱(WhatsApp), 페이스북 메신저 앱 등을 활용해 지상에 있는 가족·친구들과 비행 중에도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다. 팀 메이프스 델타항공 수석 부사장 겸 최고마케팅책임자는 "지상에서와 마찬가지로 비행 중에도 항상 연결돼 있길 원하는 승객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가장 인기가 높은 문자 메시지 플랫폼을 선정, 기내에서 무료로 쉽고 간편하게 연락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휴대 기기를 통해 델타항공 와이파이 포털에 접속하면 무료 메시지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일부 소형 여객기를 제외한 고고도 와이파이 시스템이 장착된 모든 여객기에서 제공된다. 다만 사진·동영상 파일은 전송할 수 없다.

▼영국항공, 회원 마일리지 2배 제공

영국항공이 올해 말까지 특별 멤버십 아비오스(Avios) 회원 마일리지를 2배 적립해주는 프로모션을 시행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보너스 항공권을 제외한 전 노선에 적용된다. 프로모션 마일리지는 영국항공 이그제큐티브 클럽(ba.com/double-avios)에 등록된 뒤 이용할 수 있다. 또 런던 경유 유럽 여행객을 대상으로 특가 프로모션을 마련한다. 월드 트래블러(일반석)는 74만9천400원, 월드 트래블러 플러스(프리미엄 일반석)는 145만9천400원, 클럽월드(비즈니스석)는 222만2천800원부터다. 적용 대상 항공권은 3월 31일 출발까지다.



▲베트남항공, 아태 지역 '올해의 항공사'

베트남항공은 11월 8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2017 CAPA 아시아-태평양 항공 & 여행사 씨앗'에서 항공컨설팅 전문업체 CAPA로부터 '아시아-태평양 올해의 항공사' 상을 받았다. 이 상은 전년도에 뛰어난 성과를 달성하고, 항공 산업 발전에 기여한 항공사에 주는 상이다. 베트남항공은 급속한 성장으로 높은 영업이익을 거두고, 부분 민영화에 성공한 것이 수상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CAPA에 따르면 베트남항공은 2016년 여객수송 성장률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19%를 기록했다. 또 지난해 기준 연간 탑승객이 2천만 명을 넘는 동남아 4개 항공사 중 하나다.



▲풍경 아름다운 유럽 철도 5선

유럽 철도회사 유레일은 차창 밖의 풍경이 아름다운 5개 노선을 소개했다. 스위스 체르마트~생모리츠 구간을 8시간 달리는 글레이셔 익스프레스는 세계에서 가장 느린 특급열차로 꼽힌다.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돼 속도를 올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노선은 눈 덮인 알프스와 가파른 계곡, 초록빛 들판 등 아름다운 풍경이 창밖으로 펼쳐진다. 예약해야 이용할 수 있다. 베를린~바르샤바 익스프레스는 독일 라인강을 따라 형성된 계곡과 폴란드의 푸른 발트해 연안을 감상할 수 있는 구간을 달린다. 베를린에서 바르샤바까지 5시간가량 이동하면서 풍광을 즐길 수 있다. 스위스 루체른과 몽트뢰를 잇는 골든 패스 클래스를 타면 장엄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베르나나 익스프레스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철도 구간을 지나고 알프스의 환상적인 경치도 감상할 수 있다. 포르투갈 리스본과 오비두스를 잇는 열차를 타면 차창 밖으로 아름답고 평화로운 시골 마을 풍경이 펼쳐진다. 오비두스는 포르투갈인이 가장 선호하는 주말 여행지다.